

남·북한 문화·예술의 쟁점들

# 대항문학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정보관장

“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된 후 내적 문화통합 수단로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통일한국에 있어 문학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기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분단 50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문화예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문학예술의 기능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분야는 가장 심하게 이질화된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북한 문학예술 이질화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특유의 문예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남한에서는 문예이론과 문예정책이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 문예이론은 문예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강령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주체문예이론 바탕으로 한 북한의 문화

오늘날 북한은 '우리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주체사실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중심으로 주체문예이론이라는 것을 체계화해 놓고 있다. 주체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성 내지 기본이념을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 규정짓고, 이는 수령을 뇌수로 하는 당과 주체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서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북한은 문학예술의 기능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동원수단의 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체문학예술의 기본과제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내세운다. 여기서 예술성은 사상성을 효과적으로 침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이 주어진다.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인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에 우리 민족의 기쁨과 구미에 맞는 예술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요약되며, 이밖에도 생활의 진실한 반영과 주체적 전형의 창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자론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창작기법론이다. 여기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정의된다.

### 장기적·일관적인 문화정책 마련해야

문학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5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남북한 문학예술을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질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된 후 내적 문화통합 수단으로서의 문학예술의 역할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통일한국에 있어 문학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기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먼저 그러한 남북한 예술통합의 기본방향은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동질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회귀적인 동질성 회복은 바람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21세기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문학예술을 상징하고 이를 향해 동질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여 대항적 성격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는 문예정책의 기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기에 필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예술을 대항문화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포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문학예술은 또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통합과정은 남한 예술의 퇴폐성과 상업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세계화·지역화·산업화·복지화로 요약되는 21세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의 적응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문학예술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

전의 문예작품의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는 작품은 많다. 예컨대 김소월의 시, 나도향의 소설, 김홍도의 풍속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통합의 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북한의 문학예술작품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일이 되어 통일한국의 문화예술계가 북한의 문학예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이질성 불구 공유 가능한 창작물 육성토록

먼저 사회주의적 내용은 버리되 민족적 형식은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연예술의 경우 통속적 경향(즉 신파성)이 없지 않으나 형식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구미에 맞는 창작물이 상당량 축적되어 있다.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를 단지 가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면 금지시키기보다는 가사를 일부 바꾸는 조건으로 공연과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예술인력 육성의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국악기 개량사업, 자모식 무용표기법 등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예술적 성과를 선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문학예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고급예술과 대중예술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오늘날 남한에서도 점차 양자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이른바 고급예술의 귀족주의적 성격은 문화복지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에는 북한과의 예술통합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자의 의식을 개혁하여 경제건설에 '고무 추동'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면, 남한은 문화산업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북한의 예술인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예술계로부터 거의 도태될 것이고, 그것은 통일한국 문화적 역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이 통일한국의 예술계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